

시인의 마을



방울토마토를 지나는 바람과 햇살, 구름의 시간입니다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립니다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피곤함에, 피곤이 더해와도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한결같이 손잡아 준 당신입니다
참새의 재갈거림에도 이름 모를 텃새의 짓궂은 장난에도 누군가에게 빠져 버티게 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지나는 바람과 햇살, 구름의 시간입니다 내 곁에 있어 준 당신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시어를 담다

동아리에서 텃밭에 새로운 식구가 입주했습니다. 방울토마토, 고구마, 옥수수, 가지, 고추 등 먹거리입니다. 그들을 지나는 구름의 시간은 바람과 햇살도 함께 합니다. 뜬살하게 자라기를 바란 큰 그림은 기대치었습니다.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립니다. 짝고 불안한 나의 미래가 편하게 보입니다. 지금 빨갛게 물든 단풍보다 소곤소곤 들려주는 당신의 이야기가 좋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누군가에게 꼭 빠져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평범하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 모든 가족이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박여범

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사설

순환경제 핵심은 물질 재활용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석유화학 기업 등이 PET, PP, PE, 복합필름류 등 발생량이 많은 생활계 폐플라스틱의 회수재활용 사업 진출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SK지오센트릭, SKC,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현대오일뱅크, LG화학, 쌍용C&E 등이 원천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과 협력사업으로 폐플라스틱 화학적재활용 사업을 검토 중이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선별업체를 인수한 회사도 있다.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유연탄 수입을 줄이고 대체 열원으로 폐합성수지 투입량을 공격적으로 늘렸다. 문제는 대기업이 폐플라스틱 재활용사업에 나서기 전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을 교통 정리해야 한다. 시멘트 소성로, 열병합발전 보조열원 등 에너지원으로 폐플라스틱류를 투입하는

것은 진정한 순환경제가 아니다. 고지가 종이로, 고철이 강철로, 우리가 유리병으로 되돌려지듯이 폐플라스틱도 물질 재활용제품으로 반복 재활용되어야 순환경제를 이루게 된다. 플라스틱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가정에서 깨끗이 분리 배출한 폐플라스틱류는 선별해 성형제품용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과 사업장 배출분은 화학적 재활용으로, 그리고 잔재물 등 가연성 물질은 교역연료나 시멘트 보조열원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에서 배출된 생활계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재활용 제품을 책임 구매해 최종성형제품의 안정적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플라스틱재활용 협동조합과 음식물폐기물 분리보관용기 생산 업무협약도 필요하다.

아베 관련 가정연합 입장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및 서거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가정연합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고 이상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초종교·초국가·초이념으로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190여개 국가에서 활동을 했다. 코로나 이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소속의 전 현직 국가 원수들과 함께 유엔이 추구해온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앞장섰다.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위한 희망전진대회를 비대면 형태로 꾸준히 진행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9월 가정연합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희망전진대회에서 영상 연설을 했다. 올해 2월에는 157개국 남북공동수교국가와 연대한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서면 연설을 했다. 미국과 G20국가를 포함한 85명의 전 현직 정상들과 함께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

건은 일부 언론들의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뉴스와 소문이 확산되었다. 법인은 가정연합에 소속한 신자가 아니며 과거에도 가입한 기록이 없다. 그의 모친은 월 1회 가정연합의 교회 행사에 참석해왔다. 헌법에 의한 가정과정에 대해서는 일본 경찰이 소상히 밝힐 것이다. 자발적인 헌금을 가정과판, 그리고 사업부도와 연계한 것은 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더욱이 일본의 정상급 지도자가 하나의 NGO에 영상 연설을 보냈다는 이유에서 범법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무분별한 보도는 가정연합의 명예뿐만 아니라 비명예를 간지 도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또 다른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폭력과 인명 살상은 반지성적 반문명적 행태다. 정신 감정과 범행 동기가 명확히 조사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루마 에너지에 항의하는 푸에르토리코 시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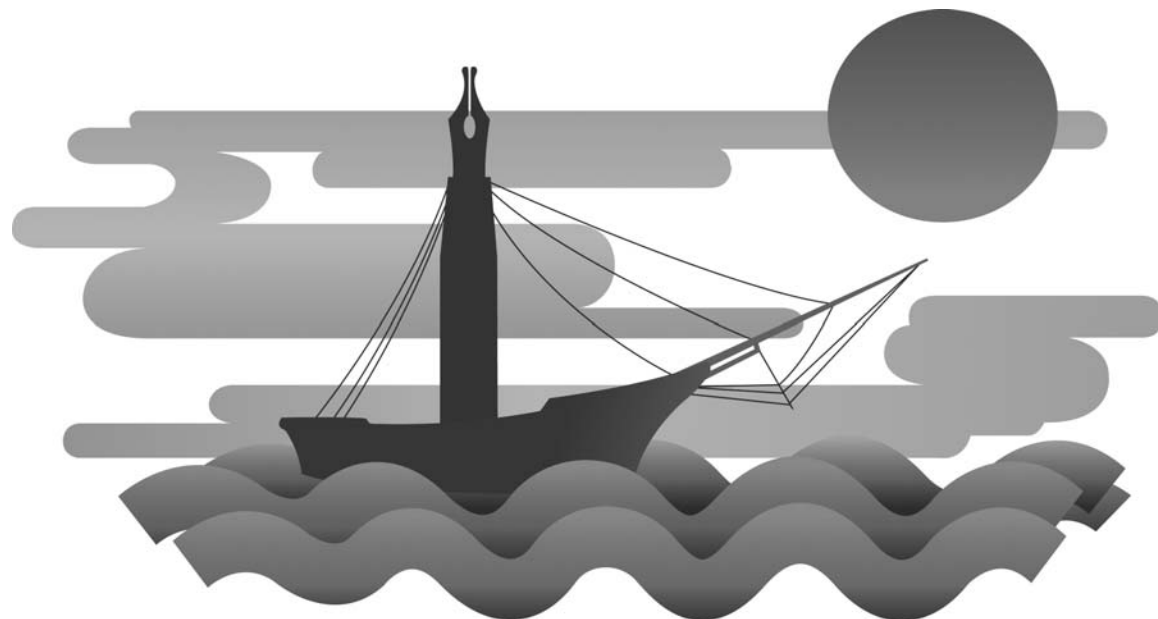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20일(현지시간) 푸에르토리코 신후인의 의사당 앞에서 시위대가 루마 에너지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를 향해 민성 정전과 잦은 요금 인상으로 논란을 빚는 민간 전력 회사 '루마 에너지'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루마가 잦은 정전시태에도 전력 요금을 꾸준히 올려왔으며 분개하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인사하는 마크롱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주 링공에 있는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